

■ 권중달교수의 역사칼럼(8)

# 대공미저(大功未著)



큰 공로는 드러나지 않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에는 요즘을 지난 시절에 중요한 일을 맡았던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를 종종 본다. 가장 극심한 경우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평가이고, 그 다음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니까 건국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영구집권을 노린 나머지 무리하게 3선 개헌을 했고, 결과적으로 4.19를 통하여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까지 운명하는 비운의 주인공이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그 집권기간 동안 근대적 산업을 일으키고 이른 바 배고픔을 잊을 수 있는 경제발전과 그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장기집권은 10.26사태라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갖는 개인적인 호불호는 접어두고 국가 사회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본다면 공로도 있고 허물도 분명히 있다. 이들에 대한 공로와 허물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들에 대한 두 극단적 평가가 있어서 서로 대립되어 있고, 점점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한 마오쩌둥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평가는 '공(功)과(過)의'라는 말로 끝내고 있다. 그가 중국에 끼친 공로는 7쪽 된다면 일을 하다가 잘 못을 저지른 허물은 3쪽 된다는 말일 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다시는 우리처럼 온 사회가 뒤범벅이 되어 한 두 사람을 놓고 평가가 갈리는 일은 없다.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의견이 갈라지는 일이야 옛날에도 있었다. 중국의 전한시대에 흉노와 한사대결하면서 벌어진 감연수와 진탕에 대한 평가가 달랐던 사건을 보면 요즘 생각이 난다.

한왕조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하여 감연수라는 사람과 진탕이라는 사람을 각기 서역도호와 부교위로 임명하여 서역지역에 내 보냈다. 사실 그 동안 흉노의 질지선우는 한(漢)에서 보낸 사신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한으로서는 뾰족하게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흉노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연수와 진탕은 서역지역을 책임지게 되자 자기를 영광 하에 있는 서역국가들의 병사를 동원해서 흉노의 질지선우를 공격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쳐부수고 질지선우 세력을 멀리 도망가게 하는 군사적인 큰 공로를 세웠다. 그 이후 흉노에 대한 격정이 없어졌다. 이는 그 동안 한나라의 누구도 세우지 못한 큰 공로였다.

사실 한나라가 그동안 흉노 때문에 고생한 것은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흉노를 쳐부수는 일에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예컨대 한무제 때에 이사(貳師)장군 이광리(李廣利)는 흉노를 공격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5만 명의 군사를 잃었고 억만(億萬)의 비용을 소모하고 4년간의 수고를 거치면서 싸웠다. 그리고 얻은 결과는 겨우 준마(駿馬) 30필을 얻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 허물도 많았는데, 무제는 머니만 만리타향에 가서 싸웠다는 것 때문에 그 지은 허물을 덮어주고 많은 상을 내렸던 일이 있다. 그러므로 감연수와 장탕이 세운 공로는 한나라의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고, 한의 물자를 소비하지도 않고서 얻은 성과였으니 이사장군에 비한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사람이 큰 공로를 세운 것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내심을 내 비치지는 않고 그들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찾아낸 허물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황제의 명령을 받지 않고 흉노를 공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흉노지역을 정벌하면서 얻은 보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잘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잘 못이라고 하려면 중앙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안했던 것도 문제로 삼아야 했지만 그것은 항상 논외였다.

어쨌거나 중앙에 있는 권력을 쥔 대신들은 도필리(刀筆吏) 즉, 법을 다루는 하급 관리를 동원하여 개선하는 군사들을 조사하고 신문하며 가두려고 하는 일까지 생겼다. 황제에게 역을 한다는 편지를 올리고 나서야 구속되는 일은 면했지만 그들이 세운 공로에 대

한 시상(旌賞)은 미적거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유항(劉向)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질지선우는 사자(使者)와 이사(使士)를 가두어 죽인 것이 100명을 헤아리고 있는데, 사건은 외국에서 갑자기 드러나게 되어 위엄을 상하게 하고 중대함을 헐었으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민망해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주살하고 싶었고, 그 뜻을 일찍이 잊은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서역도호 감연수와 부교위 진탕이 성스러운 가리움을 이어받고 신령에 의지하여 많은 민족(蠻族)들의 군왕을 함치고, 성곽에 있는 병사를 지휘하여 백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두절된 지역으로 들어갔고, 드디어 강거를 짓밟고 세 겹으로 둘러싸인 질지선우가 있는 성을 도륙하고 서역에 있는 강거국의 원수(元帥)인 흡후(歙侯)의 깃발을 뽑고 질지의 머리를 잘라서 장안에서 만 리 떨어진 곳에 걸어 두어서 곤륜산의 서쪽에 위엄을 드날리어, 한의 사신으로 흉노에 갔다가 목에 죽은 곡길(谷吉)의 수치를 씻고, 뚜렷하고 분명한 공로를 세워서 모든 이적들이 두려워 없드리고 무서워 떨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유항은 마지막으로 "근래 일한 공로는 누구보다 높는데, 큰 공로는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작은 잘못만 자주 퍼지니 신은 가만히 이를 통탄합니다."라고 한나라의 현실을 통탄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유항이 장연수와 진탕과는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다만 한나라의 종실로서 한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다. 한(漢)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공로를 세운 사람을 대우할 줄 알아야 하고 조그만 허물은 덮어 둘 줄도 알아야 한다고 외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을 들어 줄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가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을까만 걱정했을 것이다.

유항이 이러한 메아리 없는 외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00년을 지탱해 온 전한은 얼마 후에 외척인 왕망(王莽)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만다. 남의 공로를 공로로 볼 줄 모르고 자기 공로만을 내세우고 있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별안간에 유항의 외침이 생각난다.

# 검교공파 서울총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검교공파 서울총회(회장 권태욱)는 2019년 4월29(월)18시 서울시송파구 소재 '산들해' 한정식 식당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기 총무부장의 사회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태욱회장의 인사말에서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년 지급하던 장학금을 올해는 예산 사정상 3명만 지급함을 양해바랍니다"라고 인사에 가를 했다.

장학생으로 고려대학교 1학년 권기봉 아주대학교 3학년 권민정 오산대학교 1학년 권혁창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어서 검교공파 권태경회장의 격려사에서 "오늘 서울총회에서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은 훌륭한 인재로 학업을 계속 정진하여 사회에 진출하여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 자리에 장학생도 참석하여 안동권씨 특성 유래와 시조 묘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안동권씨는 신라 왕족으로 그 원조는 대보공 김알지이며 서기262년 미추왕이 김씨로 처음 등극했고 김행께서는 병산전투에서 막강한 후백제 견훤군을 대파하자 고려 태조 왕건은 김행이 신라 왕실의 원수를 갚고 삼국통일에 위업을 이루었으며 권도가 통달(炳達達權)했다고 취하 하며 권씨(權氏)로 사성(賜姓)을 내려 받으셨다"고 했으며 "태사공의 묘소는 안동시서후면 천등산



에 있었으나 실전하여 내려 오던중 서기 1470년경에 평장군사 권웅께서 여지승함을 보다가 시조 태사공의 묘소가 천등산 특에 있는 것을 알고 두루 살펴 지식을 발견하여 봉분을 쌓아놓았다. 서기1557년 안동부사20세 권소(검교공파)께서 봉분을 개축코자 봉분을 파헤치니 넓은 돌이 광중에 덮여있고 자오점을 띠워보니 자좌오항이었으며 봉분을 잘 개축하여 이로부터 해마다 한식일에 묘소에 제사를 봉행하여 오늘에 이루었다"고 했다.

서기 1635년 경상도 관찰사 24세 권우(추밀공파)께서 묘소 아래 공자를 마련해 처음으로 능동제사를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 발행 예정이었던 검교공파 족보는 2019년 대종회 5월 정기총회 때 재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격려사에 가

를했다. 다음은 4월1일자 송파신문 부회장으로 취임한 권오윤(대종회 전 사무총장)의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송파신문 부회장으로 취임한 것도 죽천여러분들의 협력덕분이며 앞으로 어딜가든 여러분을 잊지 않겠으며 "같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라, 사람이 같이오 힘이오 희망이며 가장아름다운 꽃이다" "장학생 여러분은 권문의 희망이며 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며 훌륭한 사회인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에 가를했다.

이어서 간단한 경과보고 등 공식적인 행사를 마친 후 5월24일 대종회 정기총회에 우리 회원이 많이 참석하도록 광고한 후 맛있는 한식일에 반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총무부장 권영기)

# 행주대첩과 밥할머니

고양시에는 고양 밥할머니 보존위원회(회장 김형만)가 있다. 고양 밥할머니는 고양향토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어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권윤장군은 광주목사로서 전라도 병력을 인솔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이치고개에서 왜적의 크게 물리쳐 임진왜란 최초 육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왜군의 기세를 꺾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방어하는 역사적인 승리였다. 이후 오산 독산성에서 하얀 쌀로 말을 씻는 세마(洗馬)의 지혜를 발휘해 왜적에게 또다시 승리하였다.

또 다시 복상을 거듭하여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2300여명의 민·관·군·승려·부녀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주대첩을 역사에 빛나는 승전으로 이끌었다.

이때 밥할머니가 아나네들을 동원하여 물을 끓여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해서 주었으며, 부녀자들의 긴 치마를 싹둑 자르고 앞치마로 등을 날라 적을 무찌르는데 크게 기여했다하여 이로 인해 행주치마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구전에 의하면 이 행주치마의 주인공이

바로 밥할머니라고 한다. 선조(25년)는 밥할머니의 활약상을 듣고 밥할머니 비석을 세우도록 했다 한다.

뿐만 아니라 밥할머니는 명나라의 이어송장군과 조선의 김원명 장군이 벽계관에서 일본군에 패하고 북한산성으로 쫓겨 갔을 때 가장주부였던 밥할머니가 김원명 장군을 만나러 가서 북한산의 세 번째 봉우리를 가마니와 이엉 등으로 둘러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싹뚱물처럼 횡물을 타서 아래로 내려 보내고 위에서는 밥하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라고 했다.

김원명 장군은 이 밥할머니 전략을 그대로 활용했다 한다. 일본군은 그것도 모르고 흰 싹뚱물을 직접 먹고 말에게도 먹이니 배가 아파서 후퇴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김원명 장군이 일본군을 급습해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설이다.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밥할머니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밥할머니는 해주오씨로서 불광동에서 태어났다 한다. 남평문씨택으로 시집을



고양 밥할머니 보존위원회 김형만 회장

갔다 한다. 그래서 남평문씨와 해주오씨에서 대대로 밥할머니를 모시며 치성을 드려 왔다고 한다.

2004년부터 매년 춘추향제 때는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10월 10일 11시에 향사를 봉행한다고 한다. 김형만 밥할머니 보존위원회 회장은 대종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릴적부터 동네에서 밥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컸기 때문에 밥할머니보존회를 발족시켰고 또 수년간 노력하여 밥할머니를 고양 향토문화재 제46호로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편집국장 권영완)

# 시조 태사공 춘향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만 죽천여러분, 시조 태사공과 2세 낭중공 춘향제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호에 제수성금 명단을 공고했으나 일부 명단이 누락되어 다시 공고합니다.)

## 春享祭 祭需誠金

權赫燦(始祖所 首任) 200만원		權寧沃(郎中公 首任) 100만원			
參議公宗中(대진) 30만원	安東권사모 30만원	龍仁牧使公系 30만원	宗親會長協議會 30만원		
別長公派宗會 20만원	權五甲(안동) 20만원	佐尹公派宗會 20만원	僕射公派宗會 20만원	釜山宗親會 20만원	大田宗親會 20만원
梅軒公宗會 20만원	牧使公宗中(서울) 20만원	司直公宗會(원주) 20만원	權五燮(대구) 20만원	權寧世(안동) 20만원	大邱宗親會 20만원
安東宗親會 20만원	尙儉係宗會 20만원	陵谷會 20만원			
權五燦(안동) 10만원	權相德(대구) 10만원	權五永(안동) 10만원	權春卓(영주) 10만원	權鐘律(예천) 10만원	權忠根(안동) 10만원
權純博(예천) 10만원	權容煜(포항) 10만원	權容鎬(안동) 10만원	權憲準(대구) 10만원	權宅燾(안동) 10만원	權滄龍(예천) 10만원
權赫道(예천) 10만원	權甲守(부산) 10만원	權奉煥(대구) 10만원	檢校公派宗會 10만원	中允公派敦睦會 10만원	光州宗親會 10만원
正朝公派宗會 10만원	서울靑壯年會 10만원	副戶長公派宗會 10만원	蔚山青年會 10만원	釜山青年會 10만원	榮州青年會 10만원
蔚山宗親會 10만원	大邱個人택시宗親會 10만원	副正公派宗會 10만원	權容周(고양) 10만원	權五福(대구) 10만원	權主錫(상주) 10만원
權五俊(대구) 10만원	權泰垠(대구) 10만원	權正煥(상주) 10만원	權京淑(대구) 10만원	權宅起(안동) 10만원	權五信(전주) 10만원
權大直(안동) 10만원	權寧鉉(안동) 10만원	司猛公門中(안동) 10만원	尙州宗親會 10만원	釜山宗親會婦女會 10만원	釜山壯年會 10만원
挑開門中 10만원					
權五柱(안동) 5만원	權宙衍(안동) 5만원	權五薰(대구) 5만원	權起濤(안동) 5만원	權忠鉉(대구) 5만원	權五景(대구) 5만원
權五慎(대구) 5만원	權仁淑(대구) 5만원	權東憲(의령) 5만원	權大允 5만원		
		합 계	12,000,000원		